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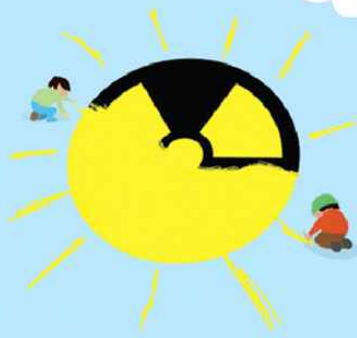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옴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망고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박근혜 마약 의혹 수사해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최순실이 물러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이 나옵니다. 우스개 같지만 설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축출시켜 마땅합니다. 자신의 거취도 결정 못할 위인에게는 한시도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약점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는 재벌총수에게 빵을 뜯은 뇌물죄 의혹,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며 이미경 CJ부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쫓아내려 했거나 쫓아낸 직권 남용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 즉 범죄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규명을 검토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약물중독 의혹 나아가 마약 의혹입니다.

청와대가 백옥주사와 태반주사, 마늘주사 등 영양주사제를 다량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운회 문건을 폭로할 당시 세계일보의 사장이던 조한규 씨는 최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 박근혜가 썼다는 백옥주사가 실은 체내 마약성분을 은폐시키는 효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옥주사 사용이 곧 마약 복용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간의 파행적이고 비합리적인 국정운영이라던가 비운의 가족사 등 박근혜의 굴곡진 인생에서 표징된 그간의 총체적 비정상성을 감안하면 의혹제기마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 관계 때나 필요한 각종 약물들이 청와대에 반입된 석연치 않은 정황도 이 의문을 뒷받침합니다.

추가 증언이나 혹은 물증 확보가 어렵다면 그저 의혹에 그칠 공산이 큼니다만, 대통령이 약물중독 나아가 마약복용 혐의가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위반 사범을 수사와 치료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잘 쓰는 표현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이런 의문까지 거론해야 할 만큼 비루해진 국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하고 참담합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8일(월) 1부 | 박근혜 마약 의혹 즉각 수사해야

[오프닝] 청와대 '백옥주사' 과연 미용 목적 뿐인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최순실 "대통령에게 전달 왜 늦나" 정호성 꾸짖어

-대면조사단핵-특검 동시 온다, 박근혜 '운명의 1주일'

-김무성 "박근혜 만난 게 정치인생 중 가장 후회스러워"

-“국정 역사교과서 여론 듣고...” 청와대 사실상 철회

-반기문-김종인 연대설 '모락모락'

[뉴스듣기능력평가] '아매 시술'도 못하는 박근혜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카스트로 사망...그의 일생과 한반도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바리케이드를 넘는 시민의 힘

-아들, 딸 회사 일감 몰아준 대한항공 14억 과징금

[공화국 논평] '백옥주사' 의혹 제기한 조한규에 대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앙일보 '촛불을 햇불로 바꿀 그 녹취'란...

대통령 박근혜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전 비서관 정호성의 휴대전화 파일이 공개될 경우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화중에는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호성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SNS에서 돌고 있는 짜라시 내용을 접해보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짜라시가 곧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향신문 **崔**, 측근 앞으로 157억 보험 들어

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재산인 288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7억원으로 저축보험에 두 차례 가입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다. 이 중 한 차례의 계약은 피보험자가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돼 있다. 법인이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흔치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기업 출연금을 바탕으로 최순실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의 운명

경향신문 **檢**, “차은택과 공범”朴 뇌물 겨냥

대통령 박근혜가 차은택의 범죄 혐의에도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차명으로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포레카 강탈 시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 특검 시작과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찰의 마지막 칼끝은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를 겨누고 있다.

중앙일보 이번 주가 ‘박근혜 운명의 1주일’

오늘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의 한 주일이 시작된다. 여러 신문이 소개한 내용이다. 먼저 검찰이 밝힌 박근혜의 대면조사 통첩일은 내일이다. 특검도 이번 주 안으로 발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야 3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발의해 이르면 오는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다수가 극우 친박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미지수다. 언제 할지 또 한다면 탄핵으로 결론 내지.

중앙일보 대선 언제 치를지는 현재에 달렸다

야 3당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표결 시점을 12월 2일이나 9일로 예고한 상태다.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선은 선거법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 초에 치뤄야 한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3일 만에 결정했다. 이번에도 60일 내에 결정이 나온다면 4월 이전에 대선이 가능하다. 벚꽃 필 무렵 새 대통령이 선출될까. 주목된다.

한겨레 “세월호 때 약물주사 맞았는지 밝혀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가 약물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겨레 사설 소개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결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자는 게 아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제구실을 못함으로써 300명이 넘는 귀중한 인명의 희생을 초래했다. 대통령이 무얼 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의 대처를 반성하고 국가 기능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약물주사 맞고 퍼 잤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지?

유유상종

朝鮮日報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

차은택의 변호인이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이라며 확인해줬다.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소개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79년 중앙정보부가 최태민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핵심 간부였다. 그의 딸 최순실 존재를 모를 리 없다. 또한 지난 5월엔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관련 조사를 하려다 돌연 중단했다. 검찰이 ‘최순실-김기춘-우병우 커넥션’의 전모를 밝히지 않으면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거짓말 속에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다. 이제 김기춘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됐다.

한국일보 김종, 국책 사업에 앙심 품고 몽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총 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하는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오·늘·을·읽·는·적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 Blueprint for revolution

스르자 포포비치 매슈 밀러 저

당시 한양대 체육대학장이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 사업에 응찰했지만 탈락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종은 2015년 뜬금없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며 이 사업의 지급승인 미루고 사업 폐지 시도까지 벌였다. 다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폐지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끝 작렬.

본인 성토했던 집회 때 사우나 즐긴 김진태

지난 토요일 춘천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하야와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천여 명의 시민들은 아예 촛불집회를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열고 촛불 비하 발언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눈이 오는 곳은 날씨 속에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죄를 요구할 때 정작 김진태 의원은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안에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중앙일보 김무성 “박근혜 만난 게 가장 후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박근혜를 만난 것”을 정치 역정에서 가장 후회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개헌을 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걱정하나

중앙일보 美 “전례 없는 韓 상황, 예의 주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현재 사태가 전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큰 관심 속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한 미 대사관 등을 통해 시시각각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모리배들

경향신문 “촛 거취도 안 정하고 개헌 띄우기”

잠잠해졌던 개헌 문제로 정치권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소개한다.

“정국 최대 이슈인 대통령 박근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론 띄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헌이 덩치를 키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연대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가치연대’가 아니라 1990년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당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개헌하는 인간들, 이름 기억하고 그들이 나중에 무슨 짓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면 알 수 있다.

세계일보 반기문·김종인 연대설 ‘모락모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이에 ‘연대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반기문 총장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반기문 총장 측은 개헌을 매개로 새 판짜기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인 씨는 일단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 짓을 해야 한다. 역대급 간보기, 이것도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몰아내고자 하는 구태다.

정상의 비정상화

국민일보 여성 대통령, 정작 여성정책은 뒷전

대통령 박근혜의 여성정책 평가는 참담하다. 궁지에 몰릴 때 여성의 사생활을 운운한 것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는 여성의 관점이 없었다. 박근혜의 재임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오히려 퇴보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간제 근로자의 70%는 여성이었다. 한편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3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약 63% 수준을 받는 데 그쳤다. 또한 여성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이다. 여성 없는 여성 대통령 시대를 조망한 국민일보 기사였다.

한국일보 홍완선, 서류평가 8위인데 인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서류평가에서 8위에 그치고도 면접에서 본부장으로 최종 인선된 것이 확인됐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면접대상자 9명 가운데 8위로 ‘턱걸이’ 포함됐다.

한국일보 청와대, 국정 역사교과서 사실상 철회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접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는 없다”는 원칙을 공유하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가로 협의하자고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또잔한 스타벅스

중잉일보 별다방, '대목'에도 문 닫은 이유는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스타벅스 매장들은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식음료 업계에서는 스타벅스가 대규모 집회가 있는 날에 영업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왜냐. 커피는 안 사마시고 화장실만 이용하는 인간들 때문이다. 스타벅스 측은 화장실 문제 때문이거나 외국기업이라서 문을 닫은 것은 절대 아니며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업을 조기에 종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말이다. 별다방 이용,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강만수의 말로

한국일보 강만수, 원유철 독대 후 490억 대출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재임 기간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한 뒤, 원유철 의원 지역구의 부실기업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산업은행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도 없이 대출은 한달만에 성사됐다. 그 결과 해당 업체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 총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으나 대부분 회수되지 못했다. 검찰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의 기존 혐의에다 '490억원 배임'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200만 촛불의 명령은 '체제 교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200만 촛불의 명령은 '체제 교체'다"입니다. 200만 촛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불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대통령의 종복으로 권력에 기생해온 새누리당, 국민들을 무한히 착취해 온 재벌,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권력의 나팔수로 타락한 언론에 대한 탄핵이고, 대통령의 부패와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 무능한 야당에 대한 질책이다. 촛불은 또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절규이며, 더 이상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의이다. 요컨대 촛불은 부패하고 파렴치한 '구체제' 전체에 대한 탄핵이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절규이며, 더 이상 타락한 기득권 집단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의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체제'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 정권이 구체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기회주의적 정치인, 탐욕스런 재벌, 타락한 검찰, 부패한 언론의 커넥션을 발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구체제를 세련되게 포장해서 영속시키는 '기만적 승리'가 될 수도 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위해 싸웠다면, 2017년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내용'을 쟁취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성명

청와대 예산 1천821억 삭감하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 정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약 905억원 및 대통령 경호실 예산 약 916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

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 역시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 또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